

시연施連칼럼

三世에서 九世 선조의 춘추향은?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원공파회장

안동 시조소를 출입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시조 태사공, 2세 낭중공은 봄가를 향사가 봉행되는데三世에서 九世 선조의 향례는 왜 지내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시조에서 자신의 아버지까지 묘소가 연결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귀한 성씨(姓氏)로 알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능동 시조소 향례에 참석하고서야三世에서 九世 선조의 춘추향이 빠진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어

느 땀가는 꼭 실현해야 할 중대사다.

권해옥 대종회장이 제임했을 때 이 문제가 잠시 논의되긴 했었다.三世에서 九世(휘諱 책冊, 균한均漢, 자평子彭, 선개先蓋, 염廉, 이여利興) 선조까지의 단소(壇所)를 능동 내 적당한 위치에 마련할건가, 아니다. 단소를 마련하려면 현 열다섯 파 상계 선조 단소(壇所)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더 이상 논의가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파 후손들 간의 입장 차가 워낙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필자는 단소를 모두 설치한다는 것은 전국의 후손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안(案)이나 대종회의 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장소 선택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으니 추모탑 건립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추모탑 하단 가운데 자리에 위패를 두고 탑의 높이를 천등산 산세에 맞추면 춘추향 때 이곳을 찾는 후손들이 쉽게 참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대종회에서 제향을 마련해도 좋고 아니면 파별 추모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 역시 하나의 안(案)일 뿐이다.

실제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후손의 성금이나 2011년 정도에서 안동으로 이장(移葬)한 낭중공(郎中公) 때처럼 전국 후손들의 모금과 성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三世 선조 호장공(戶長公, 휘諱 책冊)은 아버지(휘諱 인행仁行)의 권유를 받아들여 할아버지 태사공(太師公)이 지켰던 안동으로 돌아와 호장정조(戶長正朝)를 맡고 태사공의 제향을 받들었다. 또 해마다 두 차례씩 고려의 수도 개경(開京) 궁궐에서 열리는 국가적 제례 행사에 안동지역 대표로 참석하셨다. 부친의 품을 떠나 할아버지였던 시조 태사공의 춘추 제향을 받들기 위해 안동으로 옮긴 휘諱 책冊 선조는 조부(祖父) 태사공이 고려 왕으로부터 받은 식읍(食邑)의 땅 안동에서 백만 후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선조가 됐으며 태사모 증존위에 시조 위패를 모시는 기반을 닦았다.

특히 고려 목종(穆宗) 6년(1003) 당성홍씨(唐城洪氏, 부아 낭중郎中 휘諱 춘신春信) 사이에서 유일품별장(右一品別將)을 지내신 균한(휘諱 均漢)과 호장(戶長) 광한(휘諱 光漢) 겸한(휘諱 謙漢)을 두어서 가세를 넓히고 100만 후손 성장기반을 닦았다.

八世 선조 호장공(戶長公, 휘諱 이여利興)에 들어서도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부터 빠지리게 겪었던 가손의 외로움을 풀고 안동권씨(安東權氏)가 15개 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그려주셨다. 당시 가문의 최대 염려가 8세 선조 호장공(戶長公, 휘諱 이여利興)의 여흥민씨(驪興閔氏) 선조모(先祖母)님에 의해 풀렸다.

휘諱 백시(伯時) 중과와 부호장공과, 휘諱 중시(仲時) 추밀공 북야공과, 휘諱 취의(就宜) 동정공과, 휘諱 통통 좌원공 별장공과, 휘諱 취정(就正) 부정공과, 휘諱 융승 시중공과, 휘諱 엄습 금시중공과를 뚝뚝 문호(門戶)가 변연하게 된 것.

이렇듯 안동권씨 후손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주신三世에서 九世 선조의 춘추향은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서야 할 무거운 숙원사업이다.三世에서 끊겨버린 묘소 문제를 넘어서야만 진정한 한국의 八대 명가가 될 것이다.

신임 권영창 회장에겐 큰 부담이 될 숙원이지만 100만 후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 방향이 나올 것 같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2>



권영창 편집위원장

<성재집>은 성재(省齋) 권상익(權相翼, 1863~1934) 공의 시문집으로 30권 15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33세로 북야공파(僕射公派)이다. 자(字)는 찬수(贊粹), 호(號)는 성재(省齋) 또는 청산(淸山)이다. 경상북도 봉화 출신으로 부친은 권기연(權祺淵, 1844~1893)이며, 모친은 함안조씨(咸安趙氏)로 성옥(性玉)의 따님이다.

공은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의 문인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만국공관(萬國公館)에 보낼 호소문을 작성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10년 국권(國權)이 상실되자 후학 지도에 전념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1879~1962)·면우(旼宇) 광종식(郭鍾錫, 1846~1919) 등 유림 137명과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장서(長書)에 서명하여 이를 발송하는 일에 참가하였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1925년 김창숙이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입국하여 내몽고(內蒙古) 지방에 독립군 기지(基地)를 건설할 자금으로 20만원의 군자금(軍資金)을 모금할 때 이에 찬동하여 자진해서 군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1929년 3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애족장(愛族章)이 추서되었다.

공의 시문은 모두 <성재집>은 본집(本集) 16권 8책, 속집(續集) 12권 6책, 별도의 <덕곡담문록(德谷答問錄)> 2권 1책을 포함하여 모두 30권 15책이다.

본집은 1938년에 족집(族姪) 권명섭(權明燮)이 편집하여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서문은 없고, 권말에 김동진(金東鎭)과 권명섭의 발문이 있다. 속집은 1959년에 족집 권중환(權中煥)이 편집하여 석판본(石版本)으로 간행하였으며, 권말에 김응환(金應煥)과 권중환의 발문이 있다. <덕곡담문록>은 속집과 함께 편집·간행되었는데, 권두에 이탁(李鐸)과 김철희(金喆熙)의 서문이 있다.

본집의 권(卷)1·2에는 시(詩)가 수록되어 있고, 권3-6은 서(書)가 실려 있다. 권7은 잡저(雜著)이고, 권8은 잡저와 서문(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9는 기(記), 권10은 발(跋)·잠명(箴銘)·상량문(上樑文)·축문(祝文)·제문(祭文)·애묘문(哀謔文), 권11은 묘지명(墓誌銘), 권12는 비명(碑銘)·묘갈명(墓碣銘), 권13은 묘갈명, 권14는 묘갈명·묘표(墓表)·행장(行狀), 권15는 행장, 권16은 행장·유사(遺事)이다.

속집의 권1은 시(詩)·서(書), 권2·3·4는 서(書)이고, 권5는 잡저, 권5는 애사(哀辭)·서(序)이며, 권7은 기(記)·발(跋)이고, 권8은 묘지명·묘표·묘갈명이며, 권9는 묘갈명·행장이고, 권10은 명(銘)·상량문·축문·전(傳)이며, 권11·12는 부록(附錄)이다. <덕곡담문록>은 2권 1책으로 상편(上篇)과 하편(下篇)으로 되어 있다.

다음 두 글은 <성재집>의 본집 제10권에 실려 있는

성재집(省齋集)

것으로 선달그림과 새해아침에 벽에 써 붙인 것이다. 지금 마침 세밑과 새해를 맞아 이 두 글을 골라보았다. 먼저 1922년 선달그림에 벽에 써 붙인 글귀이다.

世教人文之變(세교인문지변)
세상의 가르침과 인류의 문화가 바뀌어도
吾不欲舍舊而從新(오불욕사구이종신)
나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르고 싶지 않다.
身心尤悔之積(신심우회지적)
몸과 마음에 허물과 후회가 쌓여도
吾不能修治而自新(오불능수치이자신)
나는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다.
經經哉(경경재) 유통성이 없도다.
其將一於舊而已耶(기장일어구이이야)
장차 온통 옛것에 매달려 있고 말겠구나.
吾當不新其不當新者(오당불신기불당신자)
나는 마땅히 새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땅히 새롭게 하지 않을 것이나
而於其當新者·惟恐其不新(어이당신자·유공기불신)
마땅히 새롭게 해야 할 것을 오직 새롭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리라.
於乎·吾今六十歲人(오호·오금육십세인)
아! 나는 지금 나이여 예순이 되니
新舊之間(신구지간)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사이에서
傷感愈新(상감유신)
마음 아파함이 더욱 새로우니
孰從我舊(숙종아구)
누가 나의 오래된 것을 따를 것이며
孰勉我新(숙면아신)
누가 나의 새로운 것을 힘쓰겠는가?
我思(아사) 나는 생각건대
同人當此歲新(동인당차세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워지리라.

다음은 1923년 새해아침에 벽에 써 붙인 글귀이다.

萬古常然(만고상연)
만고(萬古)토록 항상 그대로인 것은
天道之不易者也(천도지불역자야)
하늘의 도(道)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循環往來(순환왕래)
순환하고 왕래하는 것은
天道之更新者也(천도지경신자야)
하늘의 도(道)가 고쳐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新而不易(신이불역)
새로워져도 바뀌지 않고
不易而新(불역이신)
바뀌지 않아도 새로워지니
非健而無息(비건이무식)
이것이 굳세어 쉼이 없지 않고서야
能然乎(능연호)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君子日乾夕惕(군자일건석적)
군자(君子)가 낮에는 힘쓰고 저녁에는 경계하는 것은
法乎天也(법호천야)
하늘을 본받는 것이다.
況當一歲之元乎爾(황당일세지원호이)
하물며 한 해 첫날을 만났으니 더 말할 무엇 하겠는가?
其毋惰怠(기무타태)
절대로 게으르지 말 것이며
毋放肆(무방벽)
절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確其守·而新其德(확기수·이신기덕)
그 지킴을 확고히 하고 그 덕(德)을 새롭게 하여
毋爲君子所棄斥(무위군자소기척)
군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於乎老矣·蓋亟用力(오호노의·합기용력)
아! 늙었으니 어찌 자주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삼괴당三槐堂 권시민權時敏 할아버지의 서세逝世 500주년을 보내며

권충현 삼괴당 15세손 교육학박사

미증유의 역병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다는 희망으로 맞이했던 2023년 계묘년도 어느새 저물고 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합천, 산청, 거창, 함양 등 서부경남 지역에 많은 자손을 남겨 북야공파(僕射公派) 아래 삼괴당파(三槐堂派)라는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삼괴당 권시민 할아버지를 추모하고자 한다. 삼괴당 할아버지 서세 500주년이기 때문이다.

500여년 전 이 땅엔 계유정란 이후 특권을 누리며 중앙정치권력을 농단하고 있던 훈구대신들의 전횡에 항거하며 성리학적 이상국가 건설을 꿈꾸었던 시대의 스승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사후 부관참시를 당하고 그의 제자인 탁영 김일손, 환림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남계 표현말 등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으며 그들과 연루된 치현 권경유, 수현 권오복, 한재 이목 같은 젊은 관료들이 대거 죽임을 당했다. 점필재 선생의 제자로 죽임을 면하고 유배를 갔던 제자들은 6년 뒤 갑자년에 환림당은 효수를, 일두는 부관참시를 당하는 횡액을 겪었다.

삼괴당 할아버지는 환림당 김굉필 선생의 제자로 스무살 약관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유학을 했던 인재였으나 무오·갑자사화의 회오리 속에서 처가갓인 안음현 사마리에 은거해야만 했으니 엄혹한 사화의 시대를 살고 가진 어른이었다. 생전에는 집안 마당에 손수 세 그루 괴화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성리학 연구에 집착하였으며 배운 바를 독실히 실천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중(推重) 받으셨고 사후에는 지역 유림이 공론으로 학림서원(鶴林書院)을 세워 제향(祭享)하니 오늘날까지 춘추향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삼괴당이라는 아호는 마당에 손수 심고 키우신 세 그루 괴화나무에 연원을 두고 있다.

삼괴당 할아버지는 20세로 북야공(僕射公) 할아버지의 10세손이며 부산과 경남지역 안동권문의 뿌리인 16세 감정공(監正公) 권집덕(權執德) 할아버지의 고손이다. 1464년 산청군 생비랑에서 봉사공 권금식(權金錫) 할아버지와 장악원정 김경손(金慶孫) 할아버지의 따님이신 상주김씨(尙州金氏) 할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523년에 향년 60세로 돌아가셨다. 휘가 시민(時敏), 자가 달이(達而), 호가 삼괴당(三槐堂)이었다. 1464년 세조 10년 갑신년 생으로 20세인 1483년 성종 14년 계묘년에 소과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1523년 중종 18년 계미년에 돌아가셨으니 조카의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된 세조부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까지 다섯

왕의 치세를 살고 가셨다. 산소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 마을 뒤 계양동(桂陽洞)에 있으며 부인은 목사(牧使)를 지낸 팔계정씨(八溪鄭氏) 종아(從雅) 할아버지의 따님이셨다. 장인이셨던 목사공은 삼괴당 할아버지의 증조부이신 양산군수(梁山郡守) 권촌(權村) 할아버지의 형님 서령공(署令公) 권회(權恢) 할아버지의 사위로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형님인 김종유(金宗裕) 선생과 동서간이고 또한 동계 정은(鄭蘊) 선생의 고조부이셨다.

삼괴당 할아버지는 1남 5녀의 자녀들을 두었다. 이들은 호조정랑을 지낸 일신정(日新亭) 권일(權逸)로 큰손자는 좌승지로 증직된 여경(汝敬)이요, 둘째는 여성(汝誠), 셋째는 안의와 함양 지역에서 문행으로 성명했던 목재 여눌(汝訥), 넷째는 죽재 여합(汝洽)이었다. 외아들 일신정의 네 아들은 많은 자손을 퍼뜨려 서부경남 권문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삼괴당 할아버지의 첫째 사위는 김자용(金自鎔)이요 외손자는 희년(禧年)과 덕년(德年)이다. 희년은 모재 김안국 선생의 제자로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가 되었으나 을사사화 때 화를 당했으며 덕년은 생원으로 지금 안의 광풍루(光風樓) 앞에 고색 장연하게 서 있는 무변제월(無邊歲月) 부진광풍(不盡光風) 사비(詩碑)의 작자로 아직도 그 이름을 전



삼괴당 할아버지의 산소에는 세 개의 비석이 있다. 왼쪽 작은 옥돌 비석은 1500년대 중반에 외손자인 옥계(玉溪) 노진(盧震) 선생이 세운 비석이며, 오른쪽 비석은 1844년에 삼가현감 이행익(李行翼)이 짓고 11세손 응주(應周) 공이 글을 쓴 비석이고, 새로 세워진 큰 비석은 16세손인 권해옥(權海玉) 전임 대종회장이 1991년 국회의원 시절에 오른쪽 비의 마모된 비문을 다시 새겨 세운 것이다.

하고 있다. 둘째 사위는 판서로 증직된 신고당(信古堂) 노유명(盧友明)이며 외손자인 옥계(玉溪) 노진(盧震)은 충청 경상 도백과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흔히 옥계 선생(玉溪先生)이라는 이름으로 존송되고 있다. 노진은 청백리로도 녹신되었으며 어머니 권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효자 정려를 받고 사후에는 문효(文孝)라는 시호를 받았다. 노진의 동생 노관(盧禎)은 세계인류문화유산이된 남계서원(濼溪書院)의 건립에 기여하고 원장을 지냈으며 노진의 자형이요 삼괴당의 외손녀(外孫孀)인 영천자 신잠(申潛)은 청백리로 녹신되고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향된 선현이다. 셋째 사위는 유희정(柳希汀), 넷째 사위는 임각(林珪), 다섯째 사위는 박유(朴楡)였는데 모두 당대의 명사였다. 특히 넷째

사위 임각의 아들 남계 임희무(林希茂)는 대과급제 후 오읍 수령을 지낸 사람으로 함양의 화산서원(花山書院)에 배향되어 있으며 함양 지역 나누임씨(羅州林氏)의 자량이 되고 있다. 삼괴당의 따님들은 하나같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어 외조부인 삼괴당 할아버지의 이름에 위광을 더했다. 합천, 산청, 거창, 함양, 의령 등 서부경남지역 안동권문 삼괴당파의 파조이신 할아버지의 서세 500년을 보내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덕과 유훈을 생각하면서 남은 후손들이 더욱 분발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각자가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으로써 우리 전체 안동권문의 위광이 더해지기를 희망하며 삼괴당 할아버지의 안식과 우리 후손들의 숭조돈목(崇祖敦睦) 정신 양양을 기원한다.